

GRDP 전국 4% 달성을 위한 전망 및 과제

조택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1. 서론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서 지역 간의 경쟁은 날로 심해져 가고 있다. 충북뿐만이 아니라 여타 시도 역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둔 조직 개편과 각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민선4기 출범과 함께 충청북도도 '경제특별도' 건설을 목표로 설정하여 지역경제발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목표로 GRDP의 전국 비중 4% 달성을 제시했다. 흔히들 충북을 3% 경제라고 이야기 한다. 인구비중도 그렇고 경제규모도 전국 3% 초반대에 수년째 머물러 있다. 그러나 과거 중부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와 더불어 각종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충북경제는 2%대에서 3%대로 도약한 예가 있다. 그리고 지금 충북은 인근에 '행복도시건설', '오송 호남고속철도 분기점',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잡고 있다.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전국 GRDP 비중 4% 달성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경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미래 충북경제의 예측과 'GRDP 전국 4%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충북경제 중·장기 전망

'90년대 이전 충북GRDP의 전국대비 비중은 2%후반을 점유하고 있었으나 '90년대 이후 산업화가 촉진되면서 3% 초·중반대를 점유하고 있다. 충북의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던 '90년대 충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전국평균을 상회하였으나 '00년대 들어서면서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 비중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농림어업의 비중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85년 18.7%이던 제조업 비중은 '90년 들어 27.6%로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 비중은 '85년 22.1%에서 '04년 5.7%로 감소되었다.

90년대 충북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중부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망이 확충되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강화된 것이 '90년대 충북의 산업화 촉진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GRDP 추이 |

(단위: 십억원, %)

	GRDP						연평균성장률			
	1985	1990	1995	2000	2003	2004	85~04	90~04	95~04	00~04
전국	200,387	332,274	485,494	577,971	668,502	702,088	6.8	5.5	4.2	5.0
충청북도	5,882 (2.9)	9,540 (2.9)	15,154 (3.1)	19,521 (3.4)	21,818 (3.3)	23,690 (3.4)	7.6	6.7	5.1	5.0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주: ()는 전국대비 비중을 의미함.

충북경제의 중·장기 전망을 위해서는 '충북 거시계량모형(CBYEM2005)'를 사용하였다. 충북 거시계량모형은 6개 부문(생산, 고용, 임금·물가, 금융, 재정, 해외부문)으로 구성된 공급중시(supply-side) 모형으로서 17개의 구조방정식과 4개의 항등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기간은 1985년부터 2004년까지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우선 전국 경제성장률 등 외생변수에 대한 예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 IMF, OECD 등에서 발표한 우리나라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성장률을 사용하였으며, 기타 외생변수에 대해서는 ARIMA(p, d, q) 등 시계열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예측경로를 지정하였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가정과 외생변수의 경로를 지정한 후 충북경제의 중·장기 예측결과 2020년 충북 GRDP는 45조 8천억으로 전국 GRDP 비중은 3.69%로 추정되었다. 경제성장률은 2006년과 2007년 5.3%를 정점으로 이후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소규모 지역경제인 충북경제는 전국 경기와 동행하는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취업자 수는 2020년 8십 7만 7천명으로 연평균 1.8%증가하고, 소비자 물가는 경제성장률에 따라 상승세가 지속되어 2020년 169.1(2000=100)로 연평균 2.5%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실업률은 2005년 3.0%에서 2020년 2.2%로 하락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충북경제 중·장기 예측결과 |

(단위: 십억원, %)

	전 국		충 북					
	GDP	전국GRDP	GRDP	비 중	경제성장률	취업자수	소비자물가	실업률
2005년	721,491	727,835	24,240	3.33	2.3	669	116.2	3.0
2010년	897,703	894,035	30,794	3.44	4.5	695	134.4	2.2
2015년	1,079,644	1,066,734	37,860	3.55	4.1	774	151.8	2.2
2020년	1,267,474	1,243,708	45,880	3.69	3.8	877	169.1	2.2
증감률 ¹⁾	3.8	3.6	4.3	-	-	1.8	2.5	2.3 ²⁾

주 : 1) 증감률은 2005~2020년까지의 연평균 증감률임.
 2) 실업률은 2005~2020년까지의 평균임.

3. 정책효과 분석(모의실험 분석)

(1)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10% 증가할 경우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이 10% 증가할 경우 충북 GRDP는 2007년 27조 3천억원에서 2020년 49조 3천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2020년 충북의 전국대비 GRDP비중은 3.97%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방정부 10% 재정지출 증가는 충북 GRDP를 연평균 4.4%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지방정부 재정지출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 |

(단위: 십억원, %)

	충북 GRDP	비 중	경제성장률	GRDP증가율 ¹⁾
2007년	27,300	3.43	5.3	1.57
2010년	31,649	3.54	4.9	2.78
2015년	39,758	3.73	4.6	5.02
2020년	49,318	3.97	4.3	7.49
연평균 성장률(07~20)	4.7	-	-	4.40

주 : 1) Base line과 정책효과에 의해 추정된 GRDP의 차이임.

(2) 건축면적이 10%증가할 경우

건축면적이 10%증가하면 충북 GRDP는 2007년 27조 2천억에서 2020년 49조 1천억원으로 증가하여 2020년 충북의 전국대비 GRDP비중은 3.95%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축허가면적 10%증가는 연평균 충북 GRDP를 3.93%만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건축허가면적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 |

(단위: 십억원, %)

	충북 GRDP	비 중	경제성장률	GRDP증가율 ¹⁾
2007년	27,176	3.42	5.4	1.11
2010년	31,500	3.52	4.9	2.29
2015년	39,579	3.71	4.6	4.54
2020년	49,114	3.95	4.3	7.05
연평균성장률(07~20)	4.7	-	-	3.93

주: 1) Base line과 정책효과에 의해 추정된 GRDP의 차이임.

(3) 수출이 10% 증가할 경우

충북의 수출이 10%증가하면 충북 GRDP는 2007년 27조 2천억에서 2020년 49조 2천억원으로 증가하여 2020년 충북의 전국대비 GRDP비중은 3.96%로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충북의 수출 10%증가는 연평균 충북 GRDP를 4.19%만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수출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 |

(단위: 십억원, %)

	충북 GRDP	비 중	경제성장률	GRDP증가율 ¹⁾
2007년	27,238	3.42	5.4	1.34
2010년	31,576	3.53	4.9	2.54
2015년	39,683	3.72	4.6	4.82
2020년	49,249	3.96	4.3	7.34
연평균성장률(07~20)	4.6	-	-	4.19

주: 1) Base line과 정책효과에 의해 추정된 GRDP의 차이임.

(4) 투자액이 매년 2천억 증가할 때

국내외 기업의 적극적 투자유치를 통해 충북의 투자유치액이 추세 성장에 비해 매년 2천억원이 증가할 경우 충북 GRDP는 2007년 27조 8천억에서 2020년 50조 1천 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2020년 충북의 전국대비 GRDP비중은 4.03%로 상승하며, 기업의 투자 증가는 연평균 충북 GRDP를 6.15%만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하여 다른 변수 보다 충북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투자유치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 |

(단위: 십억원, %)

	총북 GRDP	비 중	경제성장률	GRDP증가율 ¹⁾
2007년	27,838	3.50	5.3	3.57
2010년	32,204	3.60	4.9	4.58
2015년	40,405	3.79	4.5	6.72
2020년	50,068	4.03	4.2	9.13
연평균성장률 (07~20)	4.6	-	-	6.15

주: 1) Base line과 정책효과에 의해 추정된 GRDP의 차이임.

(5) 인구가 10%증가할 때

충북의 인구가 10% 증가할 경우 충북 GRDP는 2007년 27조 9천 억원에서 2020년 50조 1천 억원으로 증가되어 2020년 충북의 전국대비 GRDP비중은 4.03%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증가는 연평균 충북 GRDP를 6.27%만큼 상승시키는 효과가 발생되어 정책효과 중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기업투자유치 증가의 경제성장 기여도 |

(단위: 십억원, %)

	총북 GRDP	비 중	경제성장률	GRDP증가율
2007년	27,902	3.51	3.3	3.81
2010년	32,224	3.60	4.8	4.64
2015년	40,436	3.79	4.6	6.80
2020년	50,144	4.03	4.2	9.29
연평균성장률 (07~20)	4.6	-	-	6.27

주: 1) Base line과 정책효과에 의해 추정된 GRDP의 차이임.

4. GRDP 4% 달성을 위한 정책과제 분석

(1) 정책과제 설정 및 추진전략

정책과제 1 지방정부 재정지출의 지속적 확대

■ 현황

충북의 총 세입액은 1997년 7천 9백 억원에서 2005년 1조 9천억원으로 연평균 14.7% 증가하였으며,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1997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연평균 15.1%, 11.5% 증가하고 있다.

총 세출액은 1997년 6천 7백 억원에서 2005년 1조 6천 억원으로 총 세입 증가율과 비슷한 연평균 14.6% 증가하였으며, 지출항목별로는 일반 행정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투자적 성격을 가지는 경제 개발비는 연평균 10.3% 증가하였다.

재정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재정자립도는 1997년 0.57에서 2005년 0.42로 하락하고 있다.

| 지방재정 세출·세입 추이 |

(단위:십억원,%)

	세 입				세 출				재 정 자립도
	총세입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양여금	총세출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1997년	786 (100.0)	197 (25.0)	183 (23.3)	72 (9.1)	668 (100.0)	65 (9.7)	92 (28.7)	299 (44.7)	0.57
2000년	934 (100.0)	192 (20.5)	178 (19.1)	72 (7.7)	832 (100.0)	71 (8.6)	256 (30.8)	399 (48.0)	0.44
2005년	1,857 (100.0)	388 (20.9)	306 (16.5)	123 (6.6)	1,646 (100.0)	193 (11.7)	537 (32.7)	651 (39.5)	0.42
연평균증감률 (00-05)	11.3	8.9	6.6	7.0	11.9	14.6	13.7	10.2	-
연평균증감률 (97-05)	14.7	15.1	11.5	11.2	14.6	22.0	16.0	10.3	-

주: 1) ()안은 총세입 또는 총세출에 대한 각 항목의 비중임.

2) 재정자립도 = (지방세수입+세외수입) / 총세출

■ 정책과제 달성 전략

지방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재원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따라서, 새로운 세원 발굴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 및 SOC투자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국비지원을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균특회계예산의 확보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현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2005년 기준 지역개발계정은 4조552억원, 지역혁신사업계정은 1조2천155억원 편성하였다. 균형발전에 대한 논리개발 및 사업발굴을 통해 예산확보는 물론 실적 및 평가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그 외에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현재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등록세 및 취득세 인화에 따른 재원보전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산편성 시 중앙정부와의 유대를 강화하여 예산확보에 최대한 주력하여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2 적극적 투자유치 활동 전개로 기업유치 활성화

■ 현 황

2004년 충북의 총고정자본 형성은 6조 7천 억원으로 전국 총고정자본 형성의 3.2%를 점유하고 있으며, 2000~2004년까지 충북의 총고정자본 형성 연평균 증가율은 2.8%로 전국의 4.0%보다 1.2%p 낮다.

충북의 해외직접투자 유치액은 95년 6천 6백만 달러에서 2005년 3억 9천만 달러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5~2005년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8.7%로 전국 평균을 약간 하회하고 있으나, 2000년 이후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 총고정자본 형성 추이 |

(단위:십억원,%)

	전 국		충 북		
	총고정자본	증감률	총고정자본	증감률	비 중
1995년	180,975	-	7,182	-	4.0
2000년	178,537	12.7	6,000	14.7	3.4
2004년	209,214	1.7	6,706	10.9	3.2
연평균증감률(00~04)	4.0	-	2.8	-	-
연평균증감률(95~04)	1.6	-	-0.8	-	-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해외직접투자 유치액의 비중은 연도별로 커다란 변동을 보이고 있으나 대략 3%선을 유지하고 있다. 2004년 쇼트클라스사의 투자유치의 효과로 해외직접투자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 해외직접투자(FDI) 유치추이 |

(신고기준, 단위:천불, %)

	전 국		총 북		
	FDI	증감률	FDI	증감률	비 중
1990년	802,635	-	66,191	-	8.25
1995년	1,947,637	47.9	70,126	216.0	3.60
2000년	15,249,609	-1.8	165,823	-5.1	1.09
2005년	11,563,518	-9.6	388,686	-63.3	3.36
2006(1~6월)	4,914,845	-	87,235	-	1.77
연평균증감률(90-05)	19.5		12.5		
연평균증감률(95-05)	19.5		18.7		
연평균증감률(00-05)	-1.8		5.8		

자료 : 산업자원부

건설투자를 반영하는 건축허가 면적은 2001년 3백 2십만㎡에서 2005년 5백 6십만㎡로 연평균 11.6% 증가하였다. 동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 2.7%를 8.9%p만큼 상회하고 있으며 전국 건축허가면적에 대한 충북의 비중은 2001년 3.3%에서 2005년 5.0%로 확대되었다. 행정복합도시 등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에 의해 아파트 등 민간부문의 건축 증가에 의해 2004년과 2005년 건축허가 면적이 크게 증가하였다.

| 건축허가면적 추이 |

(단위:천㎡, %)

	전 국		총 북		비 중
	연 면 적		연 면 적		
2001년	97,717	(-5.1)	3,211	(0.7)	3.3
2002년	138,734	(42.0)	4,097	(27.6)	3.0
2003년	142,108	(2.4)	3,352	(-18.2)	2.4
2004년	117,461	(-17.3)	5,530	(65.0)	4.7
2005년	111,506	(-5.1)	5,566	(0.7)	5.0
연평균증감률(01-05)	2.7		11.6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 정책과제 달성 전략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충북’ 건설로 기업투자환경의 획기적 개선이 필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기업의 투자환경에 대한 분석에서 충북은 최하위권에 속하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다. 평가결과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간의 노력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충북의 기업환경에 대한 실사를 통해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추진과제 발굴해야 한다. 도내 교통망 확충을 통한 교통·물류 인프라 강화, 기업지원 One-stop행정지원 시스템 구축, 금융·세무·법무 등 기업경영지원 기능 강화, 친기업 문화 조성을 위한 범 도민운동 전개 등도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충북이 가진 강점에 대한 대외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투자유치에 힘쓰며, 충북 제조업 부문의 고용 창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서비스업 유치 활동 강화도 필요하다.

정책과제 3 수출 강도(強道) 충북 건설로 수출 활성화

■ 현 황

2005년 기준 충북 수출은 각각 57억 달러로 전국대비 2.0%, 수입은 55억 달러로 전국대비 2.1%를 점유하였다. 2004년 Global IT경기 호조에 의해 충북의 수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전국대비 3.0%를 점유 하였으나, 2005년 수출급감은 지역의 수출주력기업인 LG전자 정보통신사업부의 역외이전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2005년 기준 충북의 품목별 수출은 전기·전자제품 37억 달러, 기계류 5억 7천만 달러, 화학공업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주요 품목의 수출비중을 살펴보면 전기·전자제품의 비중이 70%이상을 점유 하고 있어 특정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또한 전기·전자제품이 자본집약도가 매우 높은 산업이므로 충북의 수출은 특정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나타낸다.

| 수출·입 추이 |

(단위: 백만불, %)

	전 국		충 북			
	수 출	수 입	수 출		수 입	
	금 액	금 액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2000년	172,268 (-)	160,481 (-)	4,748 (-)	2.8	3,314 (-)	2.1
2002년	162,471 (8.0)	152,126 (7.8)	4,019 (16.5)	2.5	3,253 (21.5)	2.1
2004년	253,845 (31.0)	224,463 (25.5)	7,546 (59.5)	3.0	5,252 (46.3)	2.3
2005년	284,419 (12.0)	261,238 (16.4)	5,664(-24.9)	2.0	5,495 (4.6)	2.1
2006 (1-7월)	181,390 (13.5)	173,913 (19.3)	4,457 (52.5)	2.5	3,927 (32.2)	2.3
연평균증감률(00-05)	10.5	10.2	3.6	-	10.6	-

자료 :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 정책과제 달성 전략

청정환경에서 재배된 농·축산물의 수출확대를 꾀할 필요가 있다. 충북에서 생산되는 고추, 마늘, 화훼 등 농산물과 돼지고기 등은 질적으로도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질적 우수성을 인지하고 세계시장에서도 경쟁할 수 있다는 마인드 제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수출시장을 개척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역의 중소기업이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출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함으로써 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확보할 수 있다. 지역 중소기업이 수출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가격보다는 질적 강화와 수출시장 개척이 중요하다.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수출지원 관련 서비스업 집중 육성이 필요하다. 충북의 서비스업의 발전정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며 특히, 수출지원관련 번역, 법률 자문 등의 서비스 등의 육성을 통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 외에 충북이 강점을 보이고 있는 IT·BT관련 부품·소재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정책과제 4 행복도시 및 기업·혁신도시 파급효과 극대화

■ 현 황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 실질적이고 상징성이 큰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지역의 혁신동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혁신도시 건설이 추진 중에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충북과 인접하고 있어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 50만의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따라 청주, 청원 등 인접지역에도 상당한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시·도별로 건설되는 혁신도시는 지역의 혁신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민간투자 촉진 및 지역경제의 활력을 위해 추진되는 기업도시 또한 지역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이다.

■ 정책과제 달성 전략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파급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예로 행정도시 건설과정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하며, 행정도시 건설에 따라 유입되는 인구를 충북의 인근지역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행정보합도시뿐만 아니라 기업·혁신도시 모두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환경·문화 등 제반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행정도시 및 유입된 주민의 관광수요를 지역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관광기반강화도 같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정책과제 5 IT·BT 첨단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 현 황

선진국 및 우리나라의 산업정책은 클러스터 육성 및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충북은 오송생명과학단지를 중심으로 BT산업,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IT산업 클러스터를 집중 육성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충북의 BT산업 중에서는 의료보건산업, 의약품(생약재)산업, 기능성식품 등이 향후 유망한 산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충북 IT산업 중에서는 청주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집적되어 있는 반도체 장비 및 부품, 전자정보기기 산업 등이 향후 유망한 산업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충북의 반도체는 생산거점은 확보되어 있으나 연구개발기능은 미비한 상태이므로 장기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북 테크노파크’에서 실시한 연구¹⁾에 의하면 충북지역의 산업별 교류 실태는 생산연계에 필요한 네트워크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융기관과의 교류도는 산업에 따라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반도체 부품업에서 교류도가 매우 높고 의약품 제조업에서 교류도가 매우 낮으며, 통신방송장비와 의약품 산업에서는 기업지원서비스업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이 매우 미약한 실정이다.

■ 정책과제 달성 전략

IT업종 벤처기업들이 밀집된 중부고속도로 주변을 집중 육성하여 국내 최대의 반도체 집적지인 경기도 기흥, 이천 및 천안 등과의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광역적 클러스터로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BT산업육성을 위해 오송생명과학단지를 국가 바이오 클러스터 핵심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에 입주할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주도의 바이오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촉진시켜야 한다.

또한, 오송생명과학단지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연계하는 BIT 융합기술산업 육성하여 오송·오창산업단지 거점 지식기반산업 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산업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인력양성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적절한 기술평가와 피드백 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기관의 설립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BT 인력양성을 위하여 각 대학의 관련학과의 신설·확대를 통한 원활한 인력공급이 필요하다.

그 외에 다양한 혁신주체의 결합을 통한 지역 네트워크 강화와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초광역 네트워크 구축 등도 검토 해 볼 수 있다.

5. 정책목표 달성에 따른 중·장기 충북 GRDP추정

■ 정책목표 1 :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매년 5% 증가

충북 지방정부 재정지출이 예측된 Base Line 보다 매년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정책목표에 따라 지방정부 지출은 2010년 6조원을 돌파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1) 충북 지역특성기반의 전략산업 토착화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모형 연구, 충북테크노파크, 2005. 2.

■ 정책목표 2 : 기업투자 및 민간부문 건설 증가에 따라 건축면적이 매년 40% 증가

기업의 공장증설 및 아파트 등 민간부문의 건축증가는 건설업 부문의 부가가치 증대를 통해 충북 GRDP를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여 충북경제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외생변수인 건축면적을 예측한 후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정책목표는 건축면적이 Base Line보다 매년 40%씩 증가시켰다. 이러한 정책목표에 의해 충북의 2010년 건축연면적은 1,100만평(오창산업단지의 4배)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 정책목표 3 : 수출이 매년 10% 증가

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수출은 부가가치 증가로 이어져 지역의 GRDP를 증가시키게 된다. 특히 충북은 최근 들어 반도체 등 IT제품을 중심으로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경제의 주요한 거시변수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 수출에 대한 예측작업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년 충북 수출이 10%씩 증가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정책목표에 의해 충북의 수출은 2010년 130억 달러를 돌파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 정책목표 4 : 투자유치액이 매년 3천억원 증가

기업의 투자유치는 지역의 총고정자본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정책목표는 투자유치액이 Base Line 보다 매년 3천억원씩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연간 충북의 투자유치액이 3천억원이 아니라 기존의 추세적 증가를 제외하고 지방정부의 적극적 투자유치의 노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3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한다는 것으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정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충북의 총고정자본은 2010년 9조 9천억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목표 5 : 2010년 이후 행정도시 건설에 따른 인구증가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지역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지역의 경제적 파급효과의 극대화는 지역내로 유입인구의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러한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충북인구에 대한 예측을 실행하고 이를 이용하여 충북의 인구는 2010년 154만명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였다.

■ 정책목표를 달성할 경우 충북의 GRDP는 2013년 전국대비 4.01% 점유

충북도의 강한 추진력과 도민의 역량을 결집시켜 위에서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했을 경우 2013년 '전국 GRDP 4%'를 달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목표 달성에 의해 충북 GRDP는 2007년 28조 8천 억원에서 2013년 39조 8천억원, 2020년 55조 7천 억원으로 증가하며, 이때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5.19%를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충북 GRDP의 비중은 2010년 3.87%, 2013년 4.01%로 증가하며, 2020년에는 4.48%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 정책조합에 의한 충북 GRDP추정 결과 |

(단위: 십억원, %)

	추세적 성장			정책조합에 의한 성장		
	전국GRDP	충북GRDP	비 중	충북GRDP	비 중	GRDP증가율 ¹⁾
2007년	795,304	26,878	3.38	28,820	3.62	7.23
2008년	827,700	28,174	3.40	30,409	3.67	7.93
2009년	860,624	29,468	3.42	32,030	3.72	8.69
2010년	894,035	30,794	3.44	34,594	3.87	12.34
2013년	996,730	34,923	3.50	39,806	4.01	13.98
2015년	1,066,734	37,860	3.55	43,914	4.12	15.98
2020년	1,243,708	45,880	3.69	55,664	4.48	21.32
연평균증감률 (07~20)	3.50	4.20	-	5.19	-	-

주 : 1) Base line과 정책효과에 의해 추정된 GRDP의 차이임.

